오늘 열왕기상 18장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2.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1. Aconteció que cuando él hubo acabado de hablar con Saúl, el alma de Jonatán quedó ligada con la de David, y lo amó Jonatán como a sí mismo.
2. Y Saúl le tomó aquel día, y no le dejó volver a casa de su padre.
3. E hicieron pacto Jonatán y David, porque él le amaba como a sí mismo.
4. Y Jonatán se quitó el manto que llevaba, y se lo dio a David, y otras ropas suyas, hasta su espada, su arco y su talabarte.

궁극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정말 여인보다 승한 사랑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

물론 세간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남자와 남자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여성과 여성이라는 것에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정이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우정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로 오늘의 주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18장 1절에 보면요

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1. Aconteció que cuando él hubo acabado de hablar con Saúl, el alma de Jonatán quedó ligada con la de David, y lo amó Jonatán como a sí mismo.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했다 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남녀 간에 사랑에서는 첫 눈에 반하고 첫 눈에 그 사람을 사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을 그처럼 사랑했던 것일까? 아마 성경은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있을 것일 아닐꺼고. 왜 그랬을까?

이 상황을 전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요나단의 위치가 상황적으로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다윗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조금은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의 위치를 보면 요나단은 실제로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무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의 심적 고뇌는 어떠했을까요?

또한 궁중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단은 누구하고 토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십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운 과정이 나오죠.

만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을 봤습니다.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그는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그들의 막사 앞으로 나아왔을 때 그 마음이

떨림은 어쩔 수 없음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자기의 친구를 삼는데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들을 자기의 친구로 삼아요.

또는 신분이나 지위라든가 계층을 보고 친구를 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8장 1절을 주시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되다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원수끼리도 동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회사인 소니와 삼성의 결합.

그런 것 많이 있죠? HP와 COMPAC의 통합.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같은 경쟁 상대이면서도 하나로 뭉친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를 잠시 접어두고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한 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12. Y se hicieron amigos Pilato y Herodes aquel día; porque antes estaban enemistados entre sí.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는 친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기에 부끄러워 않으셨습니다.

과연 나는 그 분이 신분을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하고 사회 이념을 초월해서

나의 친구로 삼으시는데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친구가 되고 있는가를 자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13절입니다.

13.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14.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13. Sino tú, hombre, al parecer íntimo mío, Mi guía, y mi familiar;
14. Que juntos comunicábamos dulcemente los secretos,

우리의 진정한 친구. 요나단은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사랑했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직도 세상과의 연계의 끈을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아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벗을 사랑함이 더 깊죠.
그래서 전도집회가 됐어도 동창회에 가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일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에요.

사람은 급한 일부터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인생은 중요한 일부터 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무들의 벗에 관한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 중에는 악한 동무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를 멀리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3. No erréis; las malas conversaciones corrompen las buenas costumbr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세상 벗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벗이라 칭함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는데 나사로를 보고 친구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벗이라고 얘기한 것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죠.

악한 동무. 누구였죠? 유다.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6장 한 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50.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0. Y Jesús le dijo: Amigo, ¿a qué vienes? Entonces se acercaron y echaron mano a Jesús, y le prendieron.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칭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벗이라는 것은 신실한 벗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사로를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서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근데 나사로 같은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악한 동무를 멀리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무엘상 18장 1절로 넘어와서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더 묵상해볼까 합니다.

1.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1. el alma de Jonatán quedó ligada con la de David, y lo amó Jonatán como a sí mismo.

연락이 되어 그랬죠.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연락됐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연락이 됐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 뜻이 통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를 보면 '통했느냐' 라고 나오는 영화도 있더라구요.

통했습니까?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뜻에 맞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교제를 하다보면 모든 형제, 자매가 다 자기와 같이 않음을 이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 요나단도 다른 사람과 같이 않고 온전히 다윗과 뜻이 통했던 거에요.

교제하면 자기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해주는가 하는 형제,

자매님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자나요.

그래서 자매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마악 이렇게 질책하고. 그 앞에 가서는 다시는 교제할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자나요.

그런데 다윗,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첫 눈에 서로 뜻이 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기의 얼굴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27장. 19절.

19.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

19. Como en el agua el rostro corresponde al rostro, Así el corazón del hombre al del hombre.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마음이 비쳐줘서 서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에요. 그죠.

서로 통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잘 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긴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베드로는 그를 부인했죠.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의 결과는 결국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제자라고 내 자칭 수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을 거라는 자기의 신앙이 굳건하다고 하는 그

것들을 온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모르세요. 그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하고 눈길이 마주쳤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길이 마주쳤을 때 그 감정. 어떠했을까요?

세상 언어로 표현하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었을 거에요.

그 때에 자기의 살아왔던 과거가 일순간에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될 거고 자기의 뜻이 어떠함을 하루아침에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됐을 때, 예수님과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서로 연락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 완전히 뜻일 통했을 경우에 베드로는 당당한 순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똑같이 뜻이 통하지 않는다면 주를 부인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라는 것을 외치면 주님과의 뜻이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이 통함으로 인해서 우린 당당한 순교를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락했다는 의미 자체는 단순히 교제했다, 전화 통화해서 연락이 됐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락은 서로 마음이 통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연락이 됐다는. 18장 1절을 다시 넘어와서요.

1.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1. y lo amó Jonatán como a sí mismo.

연락이 되니깐 사랑이 된 겁니다. 그죠.

이런 사이를 친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우정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친구가 한 둘 쯤은 있을 거에요.

어찌보면 세상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있나요?

아마 이런 친구가 없다면 평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아픈데 연락할 친구가 없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해주신 분이죠.

우리도 이처럼 서로 뜻이 통할 수 있는 연락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플 때 급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

성경은 다윗을 요나단은 그리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친구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누가 나오죠? 너무 많을 걸 물어봤죠?

한번 볼까요? 11절

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1. Y hablaba Jehová a Moisés cara a cara, como habla cualquiera a su compañero. Y él volvía al campamento; pero el joven Josué hijo de Nun, su servidor, nunca se apartaba de en medio del tabernáculo.

모세를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 라고 되있어요.

얼마나 친한 사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친구에 관한 것들을 몇 군데 찾아보니깐 몇 군데 나옵니다.

역대하에서도 역대하 20장에서 다윗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잠언에서도 나오고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친구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새로운 사귐은 다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아닐 거에요.

집에서 종과 친구를 지내세요? 아니에요.

주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종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에요.

종 같은 친구. 있을까요? 없습니다.

첫째. 남녀 사이에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도 친구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종과 상전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중간에 있는 담을 다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의 담이 무너져서 친구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9. Así que, hermanos, teniendo libertad para entrar en el Lugar Santísimo por la sangre de Jesucristo,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당하니 성소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구로서 비밀이 없는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의 장이기도 하면서 친구의 장이기도 합니다. 15장 15절.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5. Ya no os llamaré siervos, porque el siervo no sabe lo que hace su señor; pero os he llamado amigos, porque todas las cosas que oí de mi Padre, os las he dado a conocer.
여러분은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몰라요?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다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히 보여서 다 알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우리들 앞에 당당히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있어서 가장 의로운 행위는 어떤 걸까?

친구에게 있어서 내가 그 친구를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13절입니다.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 Nadie tiene mayor amor que éste, que uno ponga su vida por sus amigos.

그렇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목숨. 정말 이보다 큰 사랑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친구가 있나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친구가 있나요?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랑을 봤을 경우에 그 친구는 절대 그 친구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을 거고 그 친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 된 나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 Mas Dios muestra su amor para con nosotros, en que siendo aún pecadores, Cristo murió por nosotros.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 확증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증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괜히 무거운 얘기했죠? 부부싸움만 하게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는데 나는. 나는. 나는 그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 Antes de la fiesta de la pascua, sabiendo Jesús que su hora había llegado para que pasase de este mundo al Padre, como había amado a los suyos que estaban en el mundo, los amó hasta el fin.

중간에 멈춘 사랑을 하셨습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랑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분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와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마귀의 사랑입니다.

그러는 그건 오산입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당신의 죽으심은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확증되이 시킨 사랑은 우리가 세상 끝 날까지 당신의 죽은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 날까지 나와 나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하고 싸우는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와는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졌죠.

다윗은 혼자 있을 때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꺼라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퍅케 됨을 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4.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4. Pero Dios, que es rico en misericordia, por su gran amor con que nos amó,
5. aun estando nosotros muertos en pecados, nos dio vida juntamente con Cristo (por gracia sois salvos),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언약은 확증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집도 이사하면 전세 언약을 맺죠.

등기는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도, 회사 안에서도, 직장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 그리스도와의 언약은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18장을 넘어와 보겠습니다. 4절.

4.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4. Y Jonatán se quitó el manto que llevaba, y se lo dio a David, y otras ropas suyas, hasta su espada, su arco y su talabarte.

이 때 당시만 해도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뭘 갖고 다녔을까요?

이 사람, 이 때 당시에 사사기에도 읽어보고 그러면 사무엘상 앞에도 읽어보면 이 때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이 다 쳐들어 와서요.

이들의 이 무기, 철기들을 다 뺏어가 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가 되면 괭이니 뭐 이런 것들을 블레셋에 내려가서 빌려와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어요.

군인에게 있어서 갑옷과 칼은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명과 똑같은 갑옷과 칼을 빼어줌으로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시킨 거에요.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서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10. En gran manera me gozaré en Jehová, mi alma se alegrará en mi Dios; porque me vistió con vestiduras de salvación, me rodeó de manto de justicia, como a novio me atavió, y como a novia adornada

con sus joyas.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우리 다 같이 구원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안 입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랑을 구원의 옷이라는 것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확증시키신 거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으로서. 우정에서 옷을 입히고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당신께서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가 있나요?
형제, 자매가 이러한 벗이 될 수 있나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벗된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서적을 찾아보니깐 시루스 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영은 벗을 만들고 역경을 벗을 시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영은 벗을 만들고 역경을 벗을 시험한다.

번영할 때는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역경이 오면 친구를 시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의 친구. 참된 친구 가려내

기.

그래서 지게에다가 돼지를 싣고 와서 아들이 친구들한테 그 많은 친구들 앞에 찾아갔지만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람을 죽였다 라고 했더니 다들 외면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참된 친구 셋한테 찾아갔을 때 그 세 친구 모두가 어서 오게 라고 했을 때 그 지게에서 내린 것은 돼지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친구.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과연 물질을 나누는 친구가 아닐지언정 하나쯤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은 아니라고 하나쯤은 있어야겠죠.

그런 친구가 없다면 인간관계를 잘못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친구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를 삼은 것이죠.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 26절. 사무엘하 1장 2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26. Angustia tengo por ti, hermano mío Jonatán, Que me fuiste muy dulce. Más maravilloso me fue tu amor Que el amor de las mujeres.

어찌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요.

남성과 남성은 여인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요나단을 다윗 또한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서 주체 못함을. 눈물이 메이더라구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랬을 거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사랑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아니 세상 모든 여인들보다 나를 사랑하셨을거다.

그게 다윗이 그러했고 요나단이 그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나를 사랑하는 그 분을 위해서 정절을 지켜나가고 지조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나간다면 좀 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정시킬 때마다 이 부분을 암송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

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저희 준비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전도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약한 능력을 사용하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 주께 의탁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